

남원시,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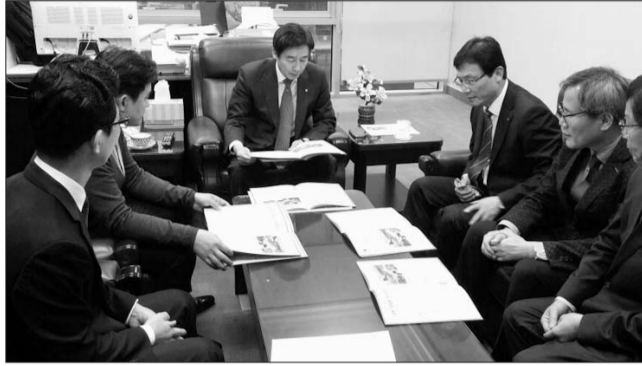
국회 방문 육아종합지원센터·지식산업센터 설립·율락정수장 개량사업 등 건의

이환주 남원시장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난 26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단체에서 결정지어지는 남원시가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주요사업인 지리산권 대표도시로 육아지원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45억)과 남원시민의 특화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공유오피스 공간 지식산업센터 설립(250억), 깨끗한 물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율락정수장 개량사업(268억) 등을 위해 노력했다.

이용호 지역구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김양건 수석전문위원 등을 만나 2019년도 남원시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회단체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남원시는 남원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의 시민 편의증대와 경제상권을 증진시킬 도시재생 뉴딜(250억원) 사업예산 확보하고 경제 활성화를



남원시는 지역발전·경제활성화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도모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민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옛 남원역사 부지에 중앙공원 조성(142억), 남원읍성을 복원(330억)해 시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만든다는 복안 등을 가지고 사업예산 확보에 매

진하고 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남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한층 끌어올리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산안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국회 대응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의 주말 길거리엔 주민들 가득할 듯'

11월 2-3일 골목 페스티벌 개최

오는 주말인 11월 2일과 3일 이틀간, 골목 페스티벌 개최로 순창군이 문화공연으로 가득할 전망이다.

천재의공간 영화산책(작은영화관) 일원에서 펼쳐지며, 무성영화 상영과 버스킹 공연, 퓨전국악 뮤지컬 공연, 주민시네마스쿨 수강생들의 작품상영 등 다채로운 공연이 열린다.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찾는 관광객과 행사장을 찾는 순창군민들로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2일에 상영될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은 1948년 윤대룡 감독의 대표작으로 근대 유행문화재 제344호로도 등록된 작품이다. 군 노홍균 문화예술계장은 "주말이면 한산해지는 관내



순창군 골목 페스티벌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만든 문화행사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가을여행주간 프로그램인

'영화촬영지 속 시네마여행'과 '야단박석 맛있는 순창'을 함께 떠날과 민속마을 두 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방세로 억울한 일 당했으면, 바로 찾아오세요

임실군, 납세자 고충 민원 권리보호 앞장

임실군이 납세자의 고충 민원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선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 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관을 별도로 두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함은 물론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

다.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실에 배치·운영한 이유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그 밖의 권리보호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심민 군수는 "지방세 운영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많은 군민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가 11월 3일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걷기행사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순신 백의종군길 남원구간 걷기행사

내달 3일... 서울~전주~남원~운봉~통영 총 640km 구간

남원시와 남원시관광협의회는 오는 11월 3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제2회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걷기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백의종군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패퇴 후 백의종군할 것을 명받고 초계(합천)의 도원수부를 찾아가는 여정을 복원한 길로써 서울~전주~남원~운봉~통영까지의 총 640km 구간을 말며, 남원구간은 오수 금안교에서 시작해 뒷밭재~남원부~이백초~여원치~운봉초~주천~앞밭재에 이르는 53.1km구간이다.

올해로 2회째인 백의종군로 걷기행사에서는 사단법인 '협동조합 마실' 조용섭 대표가 길러잡이로 코스 종점인 운봉초에서는 전통국공을 체험할 수 있으며, 남원의

초입부터 할 수 있는 뒷밭재~서남대~남원향교~용성초(용성관)까지 총 8km 구간으로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감상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참여 대상은 남원시민, 관광객, 단체 등이며, 접수는 남원시관광협의회 (633-5353)나 남원시청 관광과 (620-6164)로 선착순 무료이고, 코스 완주자에게는 1장의 카드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자북도 투어패스 카스 50매(선착순)와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양선도 관광진흥담당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역사 유적지를 걸으면서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남원이 가진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18 총무·화랑 훈련'을 실시한다.

임실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임실군이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18 총무·화랑 훈련'을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가방위요소의 통합방위 작전 숙달과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를 목표로 실시하는 종합훈련이다. 통합방위지원본부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구성하고 훈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사진

전은 비상대비에 대한 국민이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립임실호국원의 협조를 받아 실시된다. "군의 안전을 보장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인 만큼 성과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거동수상자 발견 시 경찰서·군부대 및 행정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남원시는 2018년 7월 1일 기준 2,36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규등록 등 토지이용이 발생된 필지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이다.

따라서 10월 31일부터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시장정보 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1월 30일까지 시청 민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현대화 협약체결

순창군이 지난 26일 노후 상수도 관망정비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수행을 위해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2023년까지 총 16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전문 공공기관인 K-water가 수행하게 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관 파열, 누수 등으로 인한 단수, 상수도 미공급 등의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연간 49만5,000㎡의 새는 수도물을 줄여 약 2억원의 생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비용 절감으로 확보한 예산을 시설에 재투자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물 전문기관인 K-water의 기술력을 활용해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민들이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